

었으며,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25).

즉 근대초기 여성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그나마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자 영역이었지만, 당시의 의학사회 학적인 논리로 보자면 그 모성적 권한이라는 것 또한 결국 열위에 처한 여성적 몸 안에 갇힌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권력도 현실에서나 상징적인 차원에서나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여성의 몸 일반이 그러하듯, 모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여성의 몸 역시도, 스스로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오염시키는 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패스터 165). 패스터가 지적했듯, 여성이 통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배출하는 체액은 일차적으로는 원시적 산과 기술과 다산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44), 갈렌의 체질론에 따른 복잡한 체액구분법에 따라 마치 타고난 현상인양 여겨짐에 따라서(25),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몸의 주인인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쑤턴의 자서전이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의문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담론이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회고록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과다하게 체액을 분비’하고 ‘유동적’이고 ‘열등한’ 여성의 몸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쑤턴은 임신이 질병이고 여성의 몸이 열등하다는 근대초기의 논리(패스터 184)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쑤턴은, 보잘 것 없으면 없을수록 더 완벽하게 신의 섭리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도구가 된다는 기독교의 역설적 논리를 한껏 이용하고, 여성 혹은 모성 주체는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해진다는 자신만의 역설을 명료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즉, 그녀의 자서전은, 당대의 남성중심 담론에 동의하여 ‘임신이라는 질병’을 앓는 여성의 몸이 오염되고 열등한 몸이라고 결론짓고, 그 고통스런 병을 앓는 몸의 주인을 구원하는 신의 의지에 절대복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혹은, 바로 그 이유들로 인해, 최대 권위를 획득하는 역설을 재현하는 것이다.

패스터의 주장대로, 근대초기 문화가 개인이 자신의 몸을 체험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획일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임신, 출산, 육아, 즉 모성체험이라는 특수한 경험마저도 재구성해서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164), 쏘턴의 자서전은 그 특수하면서도 비주류적인 경험을 가장 우월하고 권위있는 경험으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앞서도 지적했듯, 근대 초기 영국 사회에서 임신은 질병으로, 출산은 “배설”로, 수유는 “품격 떨어지는 노동 형태”로 해석되었다(패스터 215). 또한, 여성들에게 국한된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된 일련의 생리적 현상들에 대한 병리학적인 고찰을 통해, 여성주체가 남성주체에 비해 열등하고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정치학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쏘턴에게 있어 임신, 출산, 육아는 고통스런 경험은 될지언정 궁극적으로 수치스러운 경험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당대 지배담론이 ‘열위에 있는 몸’이 겪는 경험이라 명명했던 여성적 행위를 통해서만 신에 이르는 최고의 권위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쏘턴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기록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남성들에 의해 썩어지고 통제되고 제한되었던 여성적, 모성적 경험을 기존의 지배담론 안에서 재해석하는 동안, 그녀의 텍스트는 당대의 종교, 사회, 의학적 지배담론 안에 내재되었던 역설과 상호모순성을 건드리면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체제에 대해 전복적인 성향까지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솔츠의 주장대로, 근대 초기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가 내외부적으로 남성정체성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인 상황들과 연결되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9), 여성의 몸에 대한 기존의 의학적, 종교적, 사회적 합의를 재해석하는 쏘턴의 자서전은, 여성의 몸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남성 정체성에 대한 여성작가의 정면 도전으로도 읽힐 수 있을 법하다.

## 4.

글을 마치기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적 경험을 남성 중심으로 분석하고 기술하고 합리화시키는 글쓰기에 대한 쏘턴의 도전이, 시대 흐름과 외따로 떨어진 한 개인의 시도만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넓게 보아 쏘턴의 자서전은 여성의 우월성을 모성에서 찾고, 남성과의 관계를 담보로 한 성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통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근원을 찾아 그 우월성을 재차 증명했던, 17세기 초중반의 여성작가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듯 보이기 때문이다. ‘신의 없고 문란한 여성 일반’을 놓고 17세기 초반 벌어졌던 여성 논쟁(English querelle des femmes)이나,<sup>11)</sup> 차별과 박해를 감내하고 종국에는 죽음까지도 영웅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엘리자베스 캐리(Elizabeth Carey)의 『매리엄의 비극: 아름다운 유대의 여왕(The Tragedy of Mariam: The Fair Queen of Jewry)』(1613)이나, 인류구원에 이르는 예수 수난을 여성들의 고난과 등치시킨 에밀리아 래니어(Aemilia Lanyer)의 『유대인의 왕 하느님 만세(Salve Deus Rex Judaeorum)』(1661) 등에서, 여성 작가들은 이미 고통과 시련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여성의 우월성이나, 성적 대상이 아닌 새롭고 다른 종류의 여성성에 대해 충분히 얘기한 바 있는데, 쏘턴의 자서전은 바로 이같은 전 세대의 유산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쏘턴의 자서전은, 1671년에 출판되었던 제인 샤프(Jane Sharp)의 『조산서(The midwives book)』와 같이 읽을 수 있을 법도 하다. 샤프의 조산서에서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입장에서, 지식과 이론을 강조하는 남성 의사들을 검증하고, 신의 이름으로 산과학적 권위와 권력을 돌려받아 여성에게 재이양하고자 하

11) 1615~7년에 걸쳐 있었던, Joseph Swetnam의 여성 비하적 팸플릿(1615)에 대해서 Rachel Speght (1617), Esther Sowernam (1617), Constantia Munda (1617) 등 세 여성 작가들이 역시나 출간된 팸플릿으로 반박하면서 일어나게 된, 여성성에 대한 논쟁이다. 이 세 여성들의 반박문은 Aughterson, K. (1995: 270-7) 과 Henderson, K. U., & McManus, B. F. (1985: 172-263)등이 발췌 소개하고 있다.

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조산기술은, 인류의 존재와 안위를 위한다는 점에서, 의심할 나위 없이 가장 유용하고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조산원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심 깊은 동시에 그 직업에서 월등하게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점은 극히 필수적이다. 그녀의 신앙심은 인간으로부터만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편 이스라엘 조산원의 경우에서 그 특별히 예를 보여주셨다. 조산원들은 그들의 신념에 매우 충실해 왕의 명령도 그것을 등지지 않았다. 즉 그 조산원들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린 아들을 살려내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조산원들을 좋게 대해 주셨다[...]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남자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이 여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타고난 천성만 가지고 완벽하게 직무를 다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부지런한 수련으로 더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여성들에게도 그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쏘턴은, 조산원이자 여성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샤프와 같은 맥락에서, 임신, 출산, 수유, 육아의 경험을 신이 내리는 시련이자 남성들은 밟아 갈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재해석해서, 남성작가들이 획득할 수 없는 종류의 정체성과 권력을 형성하고자 한다.

12) The Art of Midwifry is doubtless one of the most useful and necessary of all Arts, for the being and well-being of Mankind, and therefore it is extremely requisite that a Midwife, be both fearing God, faithful, and exceeding well experienced in that profession. Her fidelity shall find not only a reward here from man, but God hath given a special example of it, Exod I. in the Midwives of Israsel, who were so faithful to their trust, that the Command of a King could not make them depart from it, viz. But the midwives feared God, and did not as the King of egypt commanded them, but saved the children alive. Therefore God dealt well with the Midwives [...].

Some perhaps may think, that then it is not proper for women to be of this profession, because they cannot attain so rarely the knowledge of things as men may [...] and though nature be not alone sufficient to the perfection of it, yet farther knowledge may be gain'd by a long and diligent practice, and be communicated to others of our own sex. (12)

근대 초기 영문학과 페미니즘간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캐서린 벨지(Catherine Belsey)는, 페미니즘은 “차별성에 대한 차별적인 진술(different relations; relation of differences)”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우즈 또한 “전체주의적인 가부장제 담론에 대해 버터 읽는” 방식으로서 “여성적 경험(female experiences)”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쏜턴의 자서전은, 위의 두 여성 비평가들이 거론했다시피, 근대 초기 자의식이 형성되는 양상을 차별적 각도에서 보다 심도 깊게 살피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 References

- Anselment, R. A.(2005), “Seventeenth-century manuscript sources of Alice Thornton’s life”, *SE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45 (1), 135-155.
- Aughterson, K.(Ed.).(1995), *Renaissance woman: Constructions of femininity in England*. London: Routledge.
- Barstow, A. L.(2000), “Witch hunting as woman hunting: Persecution by gender”, In J. Donawerth & A. Seeff (Eds.), *Crossing boundaries: Attending to early modern woman* (pp. 129-139) Newark: U of Delaware P.
- Belsey, C.(1991), *The subject of tragedy: Identity and difference in renaissance drama*. London: Routledge.
- Cary, E.(1994), *The tragedy of Mariam: The fair queen of Jewry*. (B. Weller and M. W. Ferguson, Eds.). Berkeley: U of California P.
- Donne, J.(1997),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Together with death’s duel*.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enderson, K. U., & McManus, B. F.(1985), *Half humankind: Contexts and texts of the controversy about women in England, 1540-1640*. Urbana: U of Illinois P.

- Lanyer, A.(1993), *The poems of Aemilia Lanyer: Salve Deus Rex Judaeorum*. (S. Woods, Ed.). Oxford: Oxford UP.
- Laqueur, T.(1990), *Making sex: Body and gender from the Greeks to Freu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 Newman, K.(1991), *Fashioning femininity and English renaissance drama*. Chicago: U of Chicago P.
- Otten C. F. (Ed.)(1992), *English women's Voices, 1540~1700*. Miami: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Paster, G. K.(1993), *The body embarrassed: Drama and the disciplines of shame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Peterson, L. H.(1993), "Institutionalizing women's autobiography: nineteenth-century editors and the shaping of an autobiographical tradition", in R. Folkenflik (Ed.), *The culture of autobiography: Construction of self-representation* (pp. 80-103), Stanford: Stanford UP.
- Rose, M. B.(1986), "Gender, genre, and history: Seventeenth-century English women and the art of autobiography." In *Women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Lite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s* (245-278). Syracuse, N.Y.: Syracuse UP. 245-78.
- Scholz, S.(2000). *Body narratives: Writing the nation and fashioning the subject in early modern Engl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 Sharp, J.(1671), *The midwives book. or the whole art of midwifery discovered: Directing childbearing women how to behave themselves*. London: S. Miller.
- Swetnam, J.(1615), *The arraignment of lewd, idle, froward, and unconstant women*. London.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31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

## Reading Maternal Body in Alice Thornton's Autobiography

Im, Chung-in

This paper reads Alice Thornton's autobiography, one of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female-authored autobiographies. The main interest in this paper lies in exploring the ways in which Thornton re-members her life through various sicknesses and deaths. The more specific focus of this paper is put on how she obsessively records her maternal experiences that involve pregnancy, childbirths, nursing, obstetrical illnesses, and losses of children, and how in doing so she interprets them as at once afflicting and delivering God's hands. All the sicknesses and losses she experiences as a mother become her ultimate empowerment, when she willingly submits to ineffable Providence, and they consequently become her salvation as a God's true and humble subject.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s that early modern social, religious, cultural, and medical discourses on women's unstable, inferior, and fluid body gets contested in Thornton's autobiography, due to the female author's attempt to view particularly feminine, maternal, and bodily experiences as an exclusive stairway to heaven and spiritual regeneration.